상고사 고조선의 실체를 밝힌다

고조선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건립되었는가? 고조선 나라의 광대한 영역은 고조선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장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청동기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 유입되어 국가를 이룰 만큼 넓은 영토에 퍼져서 살게 된 이후에 어느 특정 지대에 수도를 정하게 된 것인가? 고조선을 세운 구성원은 어느 혈통의 민족인가? 다시 말해서 민족의 대이동에 의한 도래인들이 고조선을 건립했는가? 아니면 원주민들이 대대로 정착해오면서 씨족사회를 이루고 부족사회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형성한 것인가? 먼저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찾아야겠다. 그래야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의 실체를 밝힐 수 있고 고조선 문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기원전 1200년) 전에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단지파 민족이 100여 년간 우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인구수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서아시아 지중해 동남쪽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출발하여 동방 해돋는 곳으로 이동해 왔다. 단지파 민족의 문화적 특징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지중해의 해양 민족인 블레셋과 200여 년간 전쟁을 치른 직후에 동방으로 이주해왔기에 청동검을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장장이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중국식 동검은 기원전 11세기(기원전 1100에서 기원전 1000년까지)에 처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단지파 민족의 청동검 제작 기술이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검도 북방 세력을 구축한 단지파 민족의 청동검 제작 기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알타이산맥 주변과 광활한 몽골초원에서 활동한 단지파 민족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다만 청동검의 원조는 북방 초원에 활약하던 유목민 집단에서 나온 것으로만 안다. 오르도스 동검을 포함한 중국식 동검은 이스라엘의 청동검과 비교하면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단지파 민족은 천손 민족이기에 천신이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졌고 단지파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조선의 수도 자리를 대동강변에 정한 것이다.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단지파 민족이 100여 년간 거주할 때 인구수가 수십만에 달했기에 빠르게 몽골초원 일대와 요녕성 일대로 퍼져나갔고 특히 요녕성에 도착한 단지파 민족은 그곳에서 기존의 이스라엘 청동검과 모양이 다른 비파형 동검을 창안하고 제작하여 동이족 분포 지역에 보급하게 되었다. 【그림❷】를 참조하면 동이족이 되는 단지파 민족은 몽골 대초원을 거쳐서 요녕성에서 산동반도까지 진출하였고 또 요녕성과 만주에서 한반도 일대로 진출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의 와당은 낙랑 와당과 고구려 와당에 영향을 미침

▲ 고조선 시대의 와당 특징: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으며 〈단군〉의 본명(本名) 『단』의 이름도 있다. 그리고 무궁화를 표현한 와당은 암술 머리 5개와 무궁화 씨앗을 새겼다.

▲ 낙랑 와당 특징: 대동강변에 위치한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낙랑예관(樂浪禮官) 와당과 낙랑부귀(樂浪富貴) 와당은 고조선 수도를 점령한 중국인이 고조선의 기와 도공을 부려 와당 문양부에 한사군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의 4구획으로 선을 긋게 했다.

▲ 고구려 와당 특징: 고구려 와당은 고조선 와당의 동심원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또한 고조선 와당의 문양부 내외측에 두 줄의 권선을 돌린 방식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고조선 문화를 계승한 증거이다.

【그림❸】은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 천년의 고조선 국가가 멸망당하고 한사군 가운데 낙랑군이 고조선 수도(대동강 유역)에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 4백 여년간(BC108~AD313) 동안 유지되었지만 고구려에 의해 수복되었다.

고조선 수도가 건립된 대동강 유역에는 고인돌 1만 5천여 기 밀집해

코카서스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 형태로 유럽과 중동 일대로 전파됨

혼구멍(spirit holes, Pothole)이 있는 코카서스 고인돌은 흑해를 가로질러 서쪽 불가리아에도 전파되었지만 적은 수에 불과하고 소위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탁자식(卓子式) 고인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은 지중해 연안의 유럽 일대에 크게 퍼져 나갔고 더 나아가 서유럽의 프랑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 덴마크와 중앙유럽 독일과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로 확산되었다.

또한 코카서스 고인돌은 남쪽으로도 전파되었는데, 특히 요르단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가운데 전면 막음돌 중앙에 뚫은 구멍(spirit holes, Pothole)이 코카서스 고인돌처럼 원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바산 지역에도 코카서스 고인돌의 영향을 받은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데, 바산의 고인돌 중에 전면 막음돌을 직사각형으로 뚫어 지면과 맞닿게 했다. 이렇게 바산 지역을 포함한 골란고원에 수천 기의 탁자식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며 골란고원의 감라(Gamla) 지역에만 700여 기의 탁자식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고인돌은 중간 청동기 시대(c. 2200-2000 BC)에 골란고원 일대를 떠돌며 생활하던 유목민들이 만든 무덤이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산재하고 있다.

요르단 고인돌

고조선 시대의 북방식 고인돌은 단지파 이동의 산물

만주 일대와 한반도 한강 이북에서 발견되는 북방식(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은 곧 고조선 세력범위와 일치한다. 고조선 시대의 북방식 고인돌 축조연대는 기원전 1,100년 내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200년에 이른다. 기원전 1,100~1,000년경에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설립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소라 성읍에서 이동해온 단지파 민족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하였다. 이는 단지파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바산의 북서쪽에 있는 사자 성읍(라이스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모세의 예언대로 단지파 민족은 단 성읍과 인접한 골란고원의 바산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으며 노아시대(대홍수 이후)의 탁자식 고인돌을 발견하고 그대로 모방했다.

이스라엘 단(檀, Dan) 성읍 근교 골란고원 고인돌
출처: https://ferrelljenkins.blog/2017/03/12/a-question-about-dolmen/

강화 부근리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북단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여 단 성읍으로 개명하여 우거한 바 있다. 단 성읍의 근교 바산 지역에 한반도의 탁자식 고인돌과 똑같은 고인돌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져 있는 고인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약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단지파를 축복하기를, '단은 바

전세계에 약 7만 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 중 4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대동강 유역에는 1만 5천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 탁자식 고인돌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横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